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7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41호

지역사회봉사단 재능기부 봉사활동 '활발'

전문 재능으로 복지현장 욕구에 맞는 봉사실천
제주지역 142개 봉사단...학습 등 8개 분야 활동

지난달 16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앞에는 '제주들꽃합창단(단장 원석철)'의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의 얼굴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연주회가 시작되자 단원들은 무대 주인공답게 그동안 갖고 닦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제주들꽃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함께 민성음 지휘자와 김한나 강릉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의 듀엣공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하모니합창단'의 특별출연이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주들꽃합창단은 2014년 주부, 직장여성 등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으로 시작해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봉사단으로 재창단해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들꽃합창단과 같이 지역사회봉사단은 지역에 산재한 동아리나 단체가 가진 고유한 전문 재능을 통해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전문봉사단이다.

지역사회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기관) 중심의 노력봉사활동 한계에서 벗어나 자발성,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을 모두 갖춘 새



▲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들꽃합창단, 아우름, 백년회 봉사활동 모습.

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522개의 지역사회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42개 봉사단이 위촉되어 8개의 다양한 분야(교육·학습, 운영·지원, 노력·행정, 기술·기능, 문화·예술, 보건·의료, 상담·정보, 교통·환경 등에서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서 꾸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 가입조건으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동아리)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회원 5인 이상의 단체로 연4회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가입문의 T.070-4726-6800).

<김승지 기자>

제주도민 주거안정 힘쓴다

제주도민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지난달 19일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제주시 동광로 소재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고현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복지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월 '주거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인력채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 날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으며,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도 7월 1일 개소한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

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경수 사장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주거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거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피력했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전국농아인대회 제주서 첫 개최
- 사회복지소식 4면
구좌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 행사 성황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시스템 위기, 기본소득이 대안

누구에게나 통(通)하는 복지

'제주복지통' 7월 중 개통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정보안내 모바일 앱 '제주복지통'이 7월 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주복지통'은 제주지역 1,08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비롯해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폭력과 학대 등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는 긴급전화와 복지관련 각종 콜센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제주복지통'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난치질환 학생 학습·건강권 보장된다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맞춤형 지원 가능

난치질환 학생들에게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15명의 도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하거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은실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좌담회에서 전국건강장애부모회를 비롯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이르

기까지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가 형성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도내 초·중·고 난치병 학생 약 320명 정도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향후 현재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과 후 활동비 수준인 약 300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세미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범, 강영봉) 장애인분과(분과장 고경희)는 지난달 5일 장애인복지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의 실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권리에 기반 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장애인, 가족, 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미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공격, 자해행동·도벽 및 집착행동)과 개인별 지원 계획의 실제에 대해 교남시넷가 조혜경 원장이 강의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극복 영상·수기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제2회 치매극복 영상 및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영상과 수기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선정할 계획이며, 도내 중학생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영상 부문은 치매예방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성 영상, 치

매관리사업 홍보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기 부문은 치매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을 주제로 한 치매와 관련된 수기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제주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jeu.ni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도는 총 2개 부문 9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작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

된다.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25일 제주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제2회 치매극복 영상 및 수기 공모전

기간: 2019. 6. 10(월) ~ 7. 19(금) 18:00
대상: 중학생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신청처: 제주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jeu.nid.or.kr) 또는 전화 064-758-1377

문의처: 064-758-1377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부모시설(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된다.

특히 도는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요청 시 실제 연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파견돌보미가 자주 바뀌어 돌보미와 아동 간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게 되면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지 않아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소득산정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으나, 별도의 소득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액 시설에서 부담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5곳)의 시설 운영, 기능 보강사업, 입소자 상담치료사업,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 등에 총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758 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6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136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 1,428개, ▲(주)쿵스투어 제주이도점=제빵155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96모,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858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310kg, ▲푸레주르 제주탐라점=빵347봉, ▲모양=빵 251봉, ▲미인빵=빵52봉, ▲비엔뉴아즈=빵53봉, ▲이선우=쌀 21kg, ▲정필이오메기=떡140개, ▲주식회사 레몬비 제주=복숭아 아이스티540개, ▲참새방앗간=떡688개, ▲파파무베이커리=빵18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70,000	26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35,000	335,000
복지사업후원	995,000	0
푸드마켓후원	3,006,752	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전국농아인대회 제주서 첫 개최

특별강연·문화공연·역사문화탐방 등 풍성



6·3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23회 전국농아인대회가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농아인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사진>

이번 전국농아인 대회는 농아인의 정체성 확보와 권익옹호, 차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강연과 문화공연, 역사문화탐방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2일 열린 전야제에

서는 WFD(세계농아인연맹)의 연락담당관으로 북한에서 4년을 상주했던 독일 농아인 로버트 그룬드 씨가 북한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사협회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한 강연을 비롯해 수어노래, 수어무용 등 농아인 문화예술 공연으로 마련됐다.

3일에는 조천체육관에서 6·3 농아인의 날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서 박춘근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다함께 연대해 이해와 배려,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사회에 호소하자”고 말했다.

또 오후에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북촌 너른송이 4·3기념관과 전쟁평화역사박물관, 제주의 오름과 바다를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이 진행되었으며, 오후 7시 산지천 북수구광장에서는 제8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올림’ 공연이 이어졌다.

폐회식이 있던 4일 오전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의 ‘제주4·3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후원물품 전달 눈길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은 지난달 5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은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4일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홍보 캠페인은 노인학대 예방 홍보체험관 운영과 함께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홍보물 배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시설 장비 강화

전자교탁·노트북 확충 사회복지전문 교육환경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함께 신규 장비들을 확충했다.

협의회는 설립이후부터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교육훈련사업을 역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함으로



▲ 지난달 4일 진행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모습.

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고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사회복지전문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빔프로젝터를 교체하

고, 노트북 19대와 전자교탁을 확충했다.

특히 이번 교육장비 확충으로 각종 전산 시스템 교육 시 수강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복지현장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견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2019 도외지역 우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견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견학은 제주푸드뱅크 운영위원과 기초 사업장 실무자 등 총16명이 참여했으며, 전라북도에 위치한 익산시행복나눔푸드

뱅크·마켓 통합사업장과 전라북도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를 방문해 각 사업장의 전반적인 소개와 운영현황, 특화사업 등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요원 연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3~15일 서울 경기지역에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국내연수를 실시했다.<사진>



이 날 국내연수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사회를 방문해 자원봉사활동 관리사례와 복지용품의 편리성과 필요성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연극관람, 관

광지 방문 등을 통해 인증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무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연대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속적인 나눔 실천 앞장



친환경 천연미생물탈취제 생산기업인 진바이오대표 김태병)는 지난 5월 27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천연 미생물탈취제 ‘진바이오리퀴드’와 반려동물 전용 ‘진바이오리퀴드 팻’ 등 총 200만원 상

당의 탈취제 제품을 기부했다.<사진>

진바이오는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시작해 올해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구좌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 행사 성황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기자랑 등 호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달 7일 구좌읍 구좌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구좌어르신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행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난타, 통기타, 밴드, 색소폰 동아리와 해병대 9여단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하인사와 점심식사로 진행됐다.

특히 각 경로당 별 단체장 기자랑(라인댄스 등)과 노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고태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구좌읍분회 회장은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한 구좌읍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윤두호 관장은 "이번 행사는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경로잔치가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గా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매년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개발공사, 사회공헌부문 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달 1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대상-사회공헌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은 고객의 마음에 한 발짝 먼저 다가서는 기업 및 지역사회와 국가 행복에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5253억원 중 경영수익의 45%를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제17회 은빛어르신 한마당잔치 열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지난달 5일 한림체육관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지난달 5일 한림체육관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제주 서부지역 어르신과 지역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은빛어르신 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재릉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와 난타 공연을 시

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 마을별 솜씨자랑,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서부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별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문화적 교류

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한림읍 수원리 경로당(노래)이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에는 애월읍 유수암리리 경로당(레크댄스), 동상은 애월읍 봉성리 경로당(노래), 인기상에는 애월읍 고성리 경로당(생활댄스), 한경면 산양리 경로당(노래)이 각각 수상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 140여명과 다양한 후원을 연계했다."며 "그로인해 서부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관광협회, 나눔 집수리 활동



제주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달 22일 협회 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주거취약 계층 가정을 방문해 나눔 집수리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사진>

이번 나눔 집수리 사회공헌활동은 지붕 우레탄 방수공사와 지붕 처마설치, 도배,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애월읍사무소(애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했다.

장애인 예능 발표회 성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김금자)는 지난달 4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11회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열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시설 장애인들의 공연과 창작의 기회 마련으로 장애인들의 예술성 향상 시키고 공연, 작품전시회, 노래자랑 등으로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 보호자 등이 약 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 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예능 발표회, 체험의 장, 노래자랑, 어울림의 장 순으로 이어졌다.

유니버설 환경 조성사업 공모

제주시는 2019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편의시설의 민간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조성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또는 노후화시설에 장애인경

사로, 핸드레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제주시 지역 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및 건축년도가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소유주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예산소진 시 까지)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무순)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늘푸른봉사회(회장 윤재봉)'는 지난달 2일 제주시 건입동 산지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봉사활동은 국악, 가요, 한국무용 등의 공연과 이·미용, 안마 봉사, 점심식사 대접,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늘푸른봉사회'는 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원금 전달 '훈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회장 황동진)는 지난달 5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단체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전달을 통해 복지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복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파크골프대회 성황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직무대행 양정심)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7개 장애인파크골프클럽과 장애인단체, 시설 등에서 신청한 100여명 선수와 내·외빈,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80여명이 참여했다.

1박2일 가족캠프 실시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 우도에서 입소 청소년과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소청소년 유대감 향상을 위한 1박2일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입소 청소년 등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특히 바다낚시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문학 교실 진행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2층에서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교실은 일상생활속의 인문학적 접근으로 노숙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매월 1회씩 이용길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장을 초빙해 진행한다.

어르신 간병비 지원



제주 삼다수 제병팀과 양성전력 직원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간병비로 각각 60만원과 200만원을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에 기탁했다.

제주양로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오래전부터 가족과의 인연이 끊어져 무연고자나 다름없는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종사자간 친목 도모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문정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으로 종사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는 교토 성요셉의료복지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장애인 통합 지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고베메모리얼파크에서는 지진 시 파손된 항만도로를 보전, 전시 작품을 관람하는 등 종사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야간 한국어학교·원예활동 운영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재)오리온재단의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야간 한국어학교와 원예활동'을 운영한다.

야간 한국어교육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와 중급 1과정으로 진행되며 원예활동은 오는 8월까지 10회기로 각각 2시간씩 이뤄진다.

제주공생 춘계체육대회



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단장 이강섭)은 지난 5월 31일 제주대학교 제2운동장에서 후보생과 제주공생 시설 입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제주공생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시희망원, 무지개마을,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공생하우스, 그루터기직업재활시설, 임마누엘의원 입소자 등이 참여한 이 날 체육대회는 굴렁쇠 계주 등으로 진행됐다.

여름 성경학교 참여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 5월 24 ~ 25일 제주도내 일대에서 제주성안교회 섬김이 봉사팀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했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서커스월드 관람과 페이스페인팅, 레크리에이션, 공연 등을 통해 봉사팀과, 직원, 이용자 모두 초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로당에 환경정화 활동 전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틀간 연동 지역내 위치한 경로당 두 곳을 방문해 바닥 왁스, 외부환경정비, 실내 청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봉금 원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바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근로 장애인들의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용자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최근 3박 5일의 일정으로 거주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이용자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시설 관계자는 "이용자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에서는 바나힐, 호이안, 미케비치 해변, 다낭대성당을 관람하는 등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시론

걸레

무심결 책상에 앉다 짝짝 놀랐다. 동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검정색 노트북에 내려앉은 미세 먼지를 비춘다. 더께를 이뤘다. 화장지로 훑치니 새카맣다.

둘러봤더니 집 구석구석 먼지 내려앉지 않은 곳이 없다. 움직일 때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닌다. 티끌세상이란 말이 실감난다. '미세먼지 나쁨'이라 하면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지나칠 게 아니다. 먼지가 폐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섬뜩하다. 숨도 못 쉬겠다.

매일 집 안 청소를 하는 친구가 생각난다. 이유를 알겠다. 아 내가 손가락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청소를 못한 지 오래다. 둘만 사는 집에 청소는 당연히 내 몫

게을러진 습관 고치기 어려워

이다. 하지만 한 달 두 번이 고작이다. 살아가는 근본이라며 자신을 다독거리지만, 게을러진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다.

진공청소기로 일단 먼지를 흡입하고 나서 몸에 밴 대로 물걸레질을 한다. 이왕 하는 건데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청소한

기본도 난다. 걸레질하다 문득 당나라 백낙천(白居易)의 시구(詩句)가 떠오른다.

“심전쇄소정무진(心田灑掃淨無塵, 마음 밭에 물 뿌리고 쓸어 티끌 없이 깨끗이 한다.)” 그때도 마음 밭에 티끌이 있었던가. 물 뿌리고 쓸어야 할 정도였다지 않은가. 시인이 요즘 세상을 만났다면 기절초풍했겠다. 티끌이 쌓여 푸석거리니 기가 막힐 것 아닌가. 더욱이 더러워진 주변을 물 뿌려 닦지 않는 걸 보며 낙담할 테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좋은 시설 해놓고 인성을 깨끗이 하려는 데도 잘 되지 않는다. 교육은 마음을 깨끗이 해 산지식을 길러야 함에도 마음 닦는 일엔 소홀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도리에는 관심이 없고, 향락과 돈 썩하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않은가. 미래의 주역을 올바르게 훈육해야 할 덕망 있는 스승도 많지 않은 세상이다. 심성을 닦는 데는 게을리 하고 지식만 굶어모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두려워해야 함에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가까이 심성을 닦아 줄 걸레가 있다. 옛 성현은 그 걸레를 만드는 데 온힘을 기울였다. 인의 예지신(仁義禮智信), 수신재가치

심성을 닦는데 힘써야

국(修身齊家治國)은 심성을 닦는 동양인들의 걸레이고, 깨달음과 비움은 부처가 마련해 준 걸레다. 예수는 사랑을 걸레로 내놓았다. 이를 받들어 허투루 해선 안된다.

심성을 닦는 걸레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다들 돈을 쳐다보느라 사팔뜨기가 돼 돈만 알아, 돈에 죽고 사는 중환자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신 번쩍 든다. 방만 닦을 일이 아니지 않나, 마음을 닦아야지



김길용 칼럼니스트

기고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현정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팀장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국제연합(UN)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에 제정했다. '17년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UN에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2017년 12월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노인 학대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웃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작년말 기준 서귀포시 노인인

구는 전체인구의 17.87%(3만 2394명)를 차지한다. 전국평균 14.76%, 제주시 13.13%를 웃돌고 있다. 통계청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비중 20%이상)의 진입을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나 서귀포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2018년 324건, 2019년 202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방책으로 해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에 서귀포시는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리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여 학대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이웃들의 관심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칼럼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자원봉사는 무보수의 자발적 행위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자원봉사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사람과 다른 측면이 있다. 보통사람은 자기만족이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반면 대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를 통한 학점 취득이나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유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야 할 대학생이 시간을 써가며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시절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사람으로 대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알고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참여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직장에 들어가 전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습득한 각 전공의 가치, 지식, 기술에 대하여 자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

타인에 대한 배려·책임감 배워

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며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강화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전공 학생에게 자원봉사는 전공 학업의 일부로 인식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과 달리 진로를 쉽게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진로 결정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외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교과목을 통해 배운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와 과정을 현장에 적용해보며 교육적 효과를 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본인에게 알맞은 분야 혹은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공 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동안의 자원봉사 경험은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열어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현주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 제2차 제주사회복지포럼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일시·장소 : 6월 20일(14:00)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

사회복지시스템 위기, 기본소득이 대안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도 제2차 제주 사회복지 포럼에서 '기본소득이 온다'를 주제로 강연한 김찬휘 부소장의 발제 내용을 심는다.<편집자 주>

이 날 사회복지포럼에서 김찬휘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5대 특징, 정당성 및 필요성,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기본소득 실험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 부소장은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으로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인' '현금소득'을 가장 큰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조금과 같은 경우 삶의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매분기, 매달, 매주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보조금과 같은 형식의 현금을 지원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하는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인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에 대

	자산심사	근로이력 조건	구직조건	개인/가구
공공부조	○	X	○	가구
실업급여	X	○	○	개인
근로장려금	○	○	X	가구
기본소득	X	X	X	개인

▲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한 지급을 꼽았다. 대부분의 지원금의 경우 가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자산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근로요건과 노동의사를

다고 시사한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2013)와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510만개 일자리가 순감소한다는 다보스 포럼 보고서를 토대로, 기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다가올 일자리 감소와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무조건 현금으로 정기 지급돼야”

입증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신자유주의 ▲감세, 규제 철폐 ▲자본소득의 증가 ▲소득양극화-빈곤의 확산 ▲소비문화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자본주의 ▲일자리의 감소/ 소멸/ 불안정 ▲완전고용 시대의 종말 ▲사회복지 시스템의 위기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 전체 고용의 47%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

고 시사한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2013)와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510만개 일자리가 순감소한다는 다보스 포럼 보고서를 토대로, 기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다가올 일자리 감소와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 역시 감세로 인한 자원 축소, 자

산심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잔여 복지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위기 상황이며, 교육·의료·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역시 재원이 축소되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성,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대 등으로 위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기본소득이 사회복지에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성 강화 ▲상병수당 신설 ▲고용보험 상한선 상향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폐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철폐되며,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상급식유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직업훈련의 유연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보험의 경우 보장성과 공공성을 높여야하며, 사회서비스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부조나 사회수당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소득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리 : 김승지>



▲ 지난달 20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기본소득이 온다'를 주제로 '2019 제2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김찬휘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시설탐방

(106)제남아동센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1952년 설립... 현재 56명 아이들 생활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한 곳이 있다. 바로 제남아동센터(원장 이상준)다.

센터는 제주 4·3사건 이후 부모를 잃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1952년 7월 설립됐다.

설립된 후부터 지금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자립전담원 등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6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움직임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아이들에게 의

견을 물어보고 진행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센터는 사회·역사학습, 제과제빵 교실, 제남스포츠클럽, 언어치료 외 심리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과제빵 교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보호종결아동 5년 동안 취업연계 등 관리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 견학과 축구 관람 등의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 등과 연계해 국내 여행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자치회를 운영해 아이들 스스로 휴대폰 사용 시간, 취침시간, 체육대회 프로그램 종목 등 작고 큰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아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켜나간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눔’

과 감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남봉사대와 함께 감사의 밤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제남봉사대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어보자’라는 비전아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 및 환경미화원, 소

보고 있다.

방관, 경찰관 등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빵 나눔을 하고 이다. 이밖에도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또한, 감사의 밤을 진행해 작은 내용이라도 서로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사 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들도 해소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센터는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한 아동과도 연락을 하면서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준다.

또한 자립전담원을 두어 퇴소 후 5년 동안은 취업연계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처음 센터로 왔을 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활발해지고 치유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남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2

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들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공원에 가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공원에서 고기를 굽는 등의 취사행위 사례가 많아지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특별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알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원내 취사는 불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그 시행령 제50조에는 다양한 유형의 금지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이상 과태료 10만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이상 과태료 5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과태료 3만원) 등이 있다. 공원 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적발이 되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취사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려견과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와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도 금지되는 행위이다.

◆ 흡연과 음주도 자제를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도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시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원 지역이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흡연 행위와는 다르게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별개로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과도한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법이 아니라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공원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곳이다.

공원이 인접해 있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